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

신효식 · 이선정 · 박순화(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또래지향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밝히고, 나아가서 초기 청소년의 올바른 또래관계를 지도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399명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은 자기보고식 평정법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양육행동과 또래지향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 및 Duncan 검증을 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r 계수로 분석하였고, 또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별로 합리적 지도는 학년, 부의 연령, 부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정은 부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통제는 부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보호는 모의 직업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참여는 학년, 성별, 형제수, 부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적 지도는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35세 미만인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은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주의적 통제는 아버지의 연령이 35~40세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보호는 어머니가 비취업인 경우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참여는 자녀의 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성별은 여학생이고, 형제수가 1명인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과 관리직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또래지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또래의 조언요구는 학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중학교 2학년인 경우에 또래의 조언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또래지향은 학년, 성별, 가족 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중학교 2학년의 남학생이 핵가족인 경우에 극심한 또래지향을 나타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또래지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또래의 조언요구는 합리적 지도, 애정과 적극적 참여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합리적 지도, 애정과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행동인 경우 또래의 조언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극심한 또래지향은 합리적 지도와 과보호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합리적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보호의 양육행동을 하면 극심한 또래지향을 나타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간의 상관관계는 또래지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또래의 조언요구는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적극적 참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의 조언요구는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 참여와는 부적 상관이 있고, 권위주의적 통제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또래지향은 합리적 지도, 애정, 과보호, 적극적 참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심한 또래지향은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 참여와는 부적 상관이 있고, 과보호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지향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또래의 조언요구는 학년, 애정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이다. 즉 중학교 2학년인 경우에 애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래의 조언요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극심한 또래지향은 합리적 지도, 과보호, 성별, 가족 형태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17%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합리적 지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핵가족의 남아일수록 극심한 또래지향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또래지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또래지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바른 생활지도를 하는 애정과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